



## 창립 20주년 계기 전문기업 성장기반 다져

### 폴리백 생산 위한 원단생산·인쇄·가공 토탈시스템 갖춰



▲ 강광욱 대표이사

21세기 진정한 기업상은 전문적인 형태를 갖춘 기업일 것이라는 데 의견이 기울고 있고 기업들도 이에 순응하는 경영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제는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문어발식 확장은 자제되어야 하며 전문품목을 개발, 주력하고 기술력을 키워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나타나야 할 시점이다.

1979년 필름전문 제조업체인 (주)서통이 설립한 자회사인 유진케미칼(주)은 최근 구조조정과 주 사업장 이전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으며 지난 해에는 강광욱 대표이사를 (주)서통에서 영입하고 본격적으로 21세기 전문 경영체제를 갖추기도 했다.

현재 회장직을 맡고있는 김창덕 회장은 대학 졸업 후 (주)서통에 입사하여 대표이사를 지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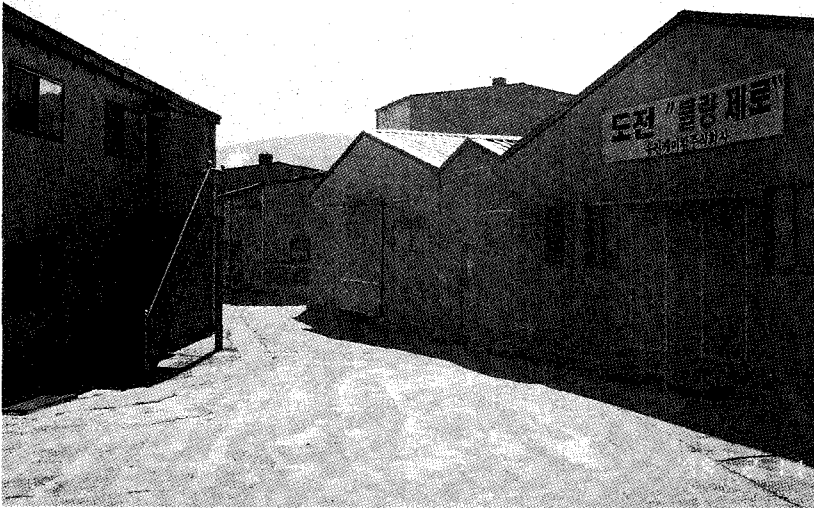
실력자로 79년 12월 유진화공이 설립된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20여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끌어 온 장본인이다.

“지난해 구조조정과 함께 70여명이던 종업원이 30여명으로 줄어드는 시련을 감수하기도 했으나 더욱 다부진 마음가짐으로 일에 임하고 있는 저희 유진케미칼은 현재 인천 인쇄사업부와 천안의 필름사업부, 가공사업부, 관리부, 개발부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발실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직은 부족한 면이 많지만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라는 최 진성 공장장은 생산과 개발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유진케미칼이 1996년 천안공장을 준공하고 최근 주 사업을 천안으로 이전한 동기는 유진의 주력품목인 다이아퍼 필름의 거래처가 천안과 오산 등지에 자리하고 있어 업무의 원활함과 납기를 맞추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라는 게 최 공장장의 설명이다.

더욱이 식품포장지를 비롯한 다양한 포장재를 생산해 오던 유진케미칼은 지난 해 말부터 품목을 모두 정리하고 폴리백과 CAST필름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진케미칼은 타 회사들과는 달리 폴리백 생산을 위한 원단 생산부터에서 인쇄, 가



◀ 유진케미칼은 최근 주 사업장을 천안으로 이전했다(사진은 천안공장 전경).

공에 이르기까지 토탈시스템을 갖춘 자체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자랑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오랜 제품생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김원희 상무를 비롯해 실력과 경험을 갖춘 소수정예의 직원들이 일인삼역의 역할을 소화해 내고 있어 적은 인원인데 반해 그 이상의 업무효율을 올리고 있다.

유진케미칼은 최근 일본 High Speed Bagger에 적합한 화장지용 폴리백 필름 테스트를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저거·생리대용 필름의 국산화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데 곧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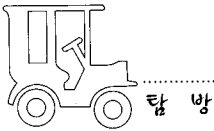
“전 포장산업계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중소기업체이다보니 역시 제품개발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유진케미칼은 나름대로 제품개발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연구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며 앞으로 정부의 이에 대한 정책적이고 금융적인 지원이 뒤따라 주기를 바란다고 최 공장장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우수한 제품 생산의 기본은 우수한 설비확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방침아래 최신의 설비증설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온 유진케미칼은 1980년 라미네이션 설비(솔벤트 타입 2라인) 확보를 필두로 83년 PE 압출 라미네이션라인, 93년 라미네이션 라인(논솔벤트타입 1라인) 외에도 PE필름 인쇄설비, 블로운 설비, 캐스트 설비 등을 확보하고 품질안정을 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이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유진케미칼의 기본적인 경영방침이다.

(주)서통에서 20여년간 심사부와 재경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진 강광옥 대표이사는 97년 하반기 유진케미칼 구조조정 실무작업에 참여했다가 인연을 맺었다. 그는 지금까지의 유진의 특성



은 살리면서 새로운 경영방식을 가미하는 효율적인 경영을 펼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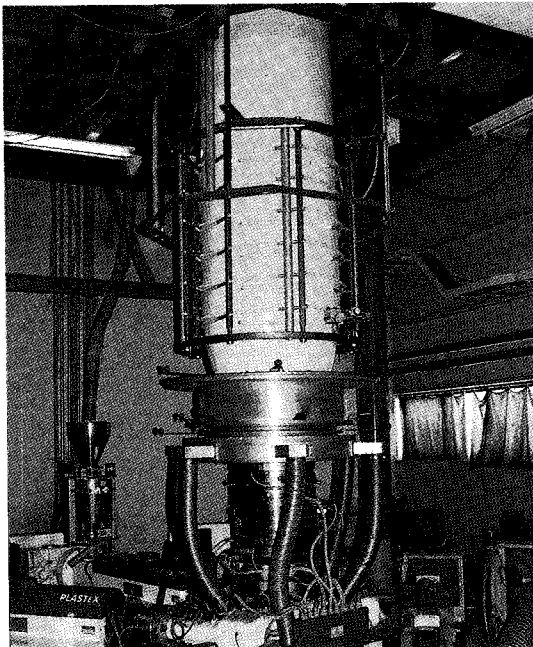
“포장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제가 유진케미칼에 몸담게 되면서 포장의 중요성에 대해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포장에 대한 개념조차도 바로 잡혀 있지 못해 포장산업계의 발전을 늦추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더욱 품질향상에 힘써야만이 포장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강 사장은 앞으로 산업계 발전에 일조하기 위해 제품 품질향상에 앞장 설 의지를 밝혔다.

덧붙여서 기술적인 분야는 서통기술연구소에서 영입된 공장장 이하 직원들의 노력으로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부족한 부분은 서통기술연구소에서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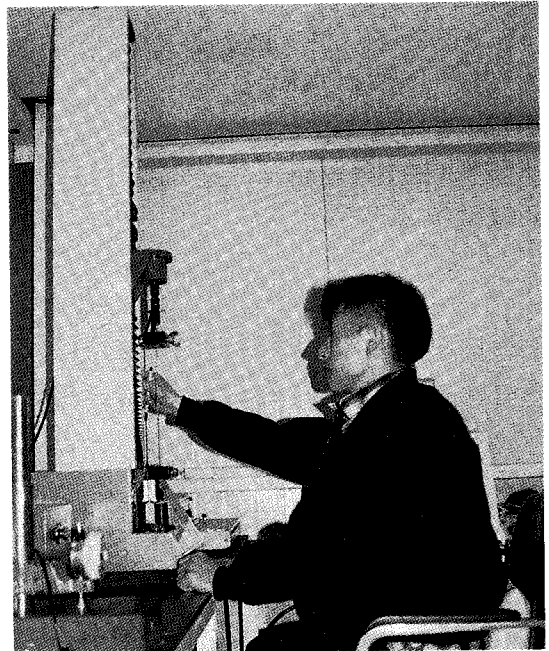
있어 큰 어려움은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역시 중소기업이다 보니 기술력을 갖춘 전문인을 구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 사장이 99년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개선제안 마일리지제와 불량삼진아웃제는 종업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데 올 9월 우수한 종업원에게는 포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조직의 풍토변화를 위한 제도적 추진의 일환으로 업무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능력개발 부여를 위한 능력급제 시행, 전략적 사고개발 훈련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일 사장 회의주제는 강 사장의 열린 경영의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 블로우필름 생산라인



▲ 인스트론 실험기로 인장강도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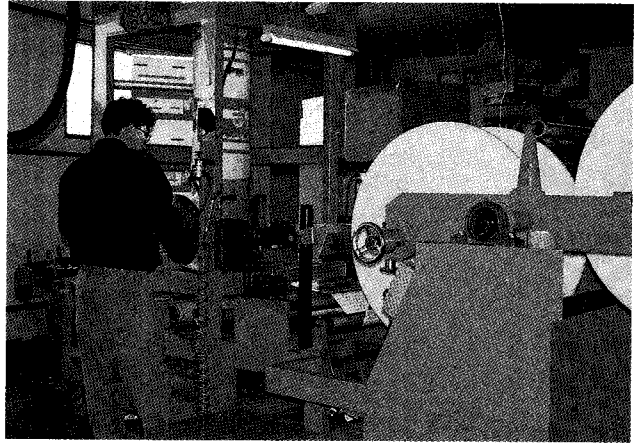
강 사장은 새로운 경영 시도를 하고 있으나 결코 직원들과 동떨어진 권위자로만 비춰지는 것은 아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가능한 수렴하고 이를 통해 인재를 발굴, 양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그의 경영노하우로 꼽을 수 있을 듯 싶다.

유진케미칼은 올 한해가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며 창립 20주년을 맞아 더욱 뜻깊은 한해가 될 것이다.

수출도 비중을 늘려 총 매출의 15~20% 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며 일본, 동남아 지역 등으로 수출지역의 다변화를 이루는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고부가가치 필름 개발, 공업용필름 개발, 인터넷 홈페이지의 독자적인 마련과 인터넷을



▲ 폴리백용 PE필름 가공 생산라인

통한 해외영업 확대, ERP시스템 도입, ISO 9000 인증 획득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특히 현재의 그라비아인쇄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PE 필름 전문회사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국내의 낙후된 PE기능성 필름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것이 유진케미칼의 장단기 계획이다.

기업의 이미지는 구성원들에 의해 결정지어 지는 것이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자신의 작업위치에서 밝은 모습으로 일에 임하고 있는 유진케미칼 주식회사 가족들의 모습은 회사의 미래를 대변해 주는 듯 했다. ☺



▲ 유진케미칼의 주력품인 기저귀·위생대용 폴리백

이선하 기자